말 뿐인 학폭 대응… 처벌기준 '흐릿'

정부 정책·제도 실효성 의구심
해외국가 비해 가이드라인 미흡
피해 예방·회복 프로그램 부족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이 대두되면서 학교폭력(학폭) 대응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학폭 발생 시 지역사회가 총합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구조를 형성하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력한 처벌 기준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마저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학폭' 정확한 기준 必…지역사회가 총합적으로 노력해야

캐나다는 차별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양상을 띠는 만큼 학폭에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2011년 온타리오에서 괴롭힘으로 15세 소년이 자살한 사건 이후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학폭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명확히 설정했다. 사소한 모욕도 폭력으로 판단해 엄중하게 처리하며, 교사가 피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할 시 교사 자격증을 박탈할 수 도 있는 강력한 법률적 체제를 설정했다.

미국 역시 대부분의 주에서 '왕따방지법'을 법제화해 학폭 발생 시 최소 퇴학 처분이 내려지는 강력한 처벌 기준을 갖췄다. 또한, 경찰이 주도적으로 학폭 대응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동시에 책임지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학폭 감소를 위해 '학교 경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 경찰'이란 학교를 관할 구역으로 교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학교사회복지의 '영국, 미국, 노르웨이, 독일의 학교폭력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방안 분석연구(2013)' 논문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는 '총체적 학교 접근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학생,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모두 학교 질서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학폭 발생 시 사회적으로 다뤄질 수 있게 된다.

◆피해자 중심 프로그램 부족…다변화된 학폭 대책은?

특히 한국은 피해자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이 현저히 적은 편이다. 현재 한국의 학폭 피해 학생 전담의 대안 교육시설은 '해맑음 센터'가 유일할 뿐더러 피해학생을 위한 회복 지원 역시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 하나밖에 없는 수준에 가깝다. 조정실 학폭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전국의 약 1만1700개 학교 중 피해 학생 없는 학교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직까지도 정부는 피해 학생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학폭 유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변화되면서 이제는 신체 폭력과 같은 물리적 폭력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제26권 제1호에 실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데이터 수집 분류 모형과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2023)'에서는 효과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교육 여건이나 관계·환경·시간적 특성 등 학교폭력 관련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세부 요소를 세밀하게 수집할 필요성을 짚었다. 아직까지도 학폭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기초 자료 수집에 있어 실태조사나 신고 시스템상에서 관련 세부 구성요소가 세밀하게 수집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학폭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시기 등을 미리 파악하고, CCTV 사각지대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수집돼 있면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관계 기관에서 학생 맞춤형 상담·교육을 진행할 때도 활용할 데이터가 늘어나게 돼 긍정적이라는 지적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유럽 출장길 오르는 오세훈 서울시장

'매력특별시' 성공전략 찾는다

22일까지 9박 11일 일정
글로벌 리딩도시 서울 홍보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사진)이 이달 12~22일 9박 11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에서 오 시장은 세계적인 금융도시들의 투자 유치 전략, 강과 바다를 활용해 활력과 경제력 넘치는 도시로 번영할 수 있었던 유럽 수변 도시들의 선행 개발 사례를 직접 둘러보고 사람·기업·자본이 몰리는 핵심 성공 전략을 꼼꼼히 챙겨 올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오 시장은 3월 12~15일 영국 런던에서 '금융·기업도시'와 '수변매력도시' 등 매력특별시 원년 핵심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얻고

글로벌 리딩도시 서울을 홍보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템즈강의 매력을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런던아이, 템즈강의 활용도를 높이는 신(新) 이동수단(리버버스, IFS 클라우드 케이블카)을 직접 타보고 도심의 매력도를 높인 성공 요인을 분석, 서울시가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참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런던증권거래소-서울투자청 협력 업무협약(MOU),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니콜라스 라이언스 런던금융 특구 시장 면담 등을 통해 기업 해외진출과 서울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시-바젤대

액셀러레이션 참여 기업 모집

서울시는 스위스 바젤대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현지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바이오·의료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바젤주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의 주축을 이루는 바젤대와 함께 올해 총 10개사를 대상으로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차(4월) 5개사, 2차(8월) 5개사로 나눠 참여 기업을 선발하며, 모집 분야는 '디지털 헬스', '바이오·의료 혁신 기술'이다.

선발된 기업은 바젤 현지에서 4주간 글로벌 제약사 및 벤처투자자와의 네트워킹, 바젤대 협력기관 연구소에서의 기술 검증과 임상·비임상 연구 기회, 유럽 시장 진출과 투자유치 관련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받는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교육청, 난독·경계선지능 학생 학습지원 강화

42개 전문기관 업무협약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의 전문적인 학습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지원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오전 9시 30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2층 강당에서 42개 난독·경계선 지능 전문지원기관과 업무협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교육청과 전문지원기관의 상호 협력으로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진단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협력 내용은 ▲교육청은 난독·경계선 지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지원 수요를 파악해 신속한 진단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매칭 및 학생 성장 관리를 지원하며 ▲전문지원기관은 교육청이 의뢰한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진단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청과 전문지원기관은 학생 지원 사례 공유 등 학생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난독·경계선 지능 관련 진단 및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속학교를 통해 각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지역학습 도움센터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선택한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하은 기자

용인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5357억 투입

개인 삶의 질 향상 등 94개 사업 추진

용인특례시는 12일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 차원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방향에 발맞춰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등 94개 사업에 총 5357억 원을 투입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용인(경기)=임창교 기자 lckda@

교육부, '글로컬대학위원회' 출범… 자율적 대도약 지원

지역발전 견인할 글로컬대학 육성

지역혁신의 허브로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경쟁력 있는 글로컬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글로컬대학위원회'가 출범한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위원회가 13일 서울 엘더블유(LW) 컨벤션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글로컬대학위원회 운영 규정(안)과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에 대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글로컬대학이란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말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대학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하향식 대학 지원 사업은 대학의 전면적 혁신과 개혁을 이끌기에는 한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글로컬대학위원회가 중심이 돼 자율적인 대학의 대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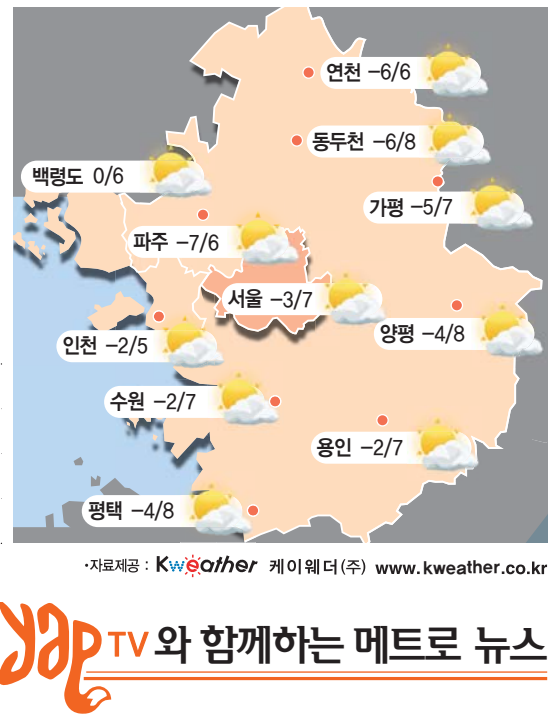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47 | 해짐 / 18:37

3월 13일 (月)
음력 : 2월 22일

수도권 날씨
-3 ~ 7℃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일본, 오늘부터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벗는다 /사진 뉴시스
▲ 美정부, SVB 파산 대응 …예금보호 초과분 조기지급 등 검토
▲ G7, 중요물자 공급망 구축 히로시마 서밋 공동문서에 명기
▲ 프랑스 상원, 30만 명 반대 시위 속 연금개혁법안 1차 통과

▲ 프란치스코 교황 "우크라 간다면 러도 함께 방문하겠다" /사진 뉴시스
▲ 獨 베를린 "여성도 수영장서 상의 탈의 가능"…'양성평등' 위해 결정